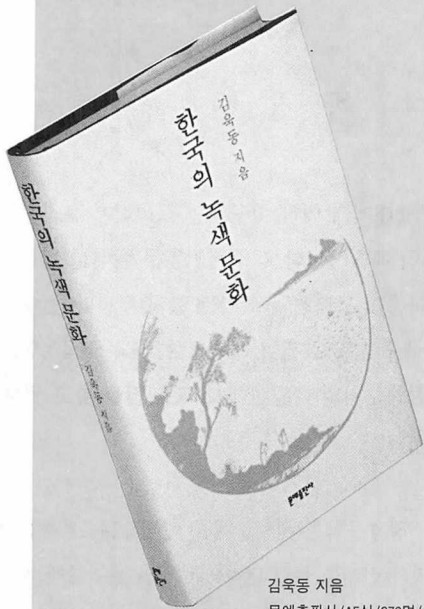


'녹색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생태론의 시각에서 전통문화 되살려

《한국의 녹색문화》



김옥동 지음
문예출판사/A5신/370면/15,000원

학문적 관심의 광역성과 학문의 대대적 과제에 대한 강한 의식, 이 두가지에 걸쳐서 그동안 김옥동 교수는 남다른 시각을 보여줬고 또 목소리를 들려줬다. 무엇보다 이 미덕을 거듭 확인할 수 있어서 《한국의 녹색문화》를 읽는 일이 마음 흡족했다. 지적 호기심의 심층적 넓이와 그 호기심으로 말미암은 부단한 변신이야말로, 학문인의 지표라고 평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되도록 그 지표에 다가가고자 하는 편인 평자에게 이 책이야말로 '학문의 녹색' 그 자체로 다가왔다.

저자가 이 책을 쓴 데는 몇가지 필연적인, 아니 어쩌면 필수적이라고 할 상황 또는 동기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인문·사회과학 영역이 '문화론' 또는 '문화연구'로 화해가는 강한 경향성에 이 저서가 발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저자가 그의 신저(新著)를 스스로 '문화의 녹색'이라고 자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오늘날의 문화 그 자체가 이룰테면 '하이퍼 컬처'라고 호칭될 만큼 초범주화하고 있는 동태 속에 자연이며 생태계, 그리고 이른바 '생태비평'까지도 관여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문학과 문화론이 그동안 형식주의(기호론까지 포함한)의 우세에서 전향해 새로운 현실로 되돌아들되, 그 귀착점이 하나는 페미니즘이요 다른 하나가 곧 생태계 및 자연이라는 상황을 이 책이 익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에코 페미니즘'을 결눈질해야 하지만, 요긴한 것은 자연이 혹은 생태계가 역사, 사회라는 저 고전적인, 또한 관습적인 현실(또는 리얼리티) 대신, 새로운 리얼리티로서 당당히 문학론 및 문화론의 최전선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생태이론' 또는 '생태비평'이 오늘날 첨단이요 '지적 벤처'라는 것은 새삼 말할 나위도 없다.

이 책은 두가지 점을 강하게 의식하고 또 실천하고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논점 하나를 추가해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소위 '식민주의 이후' 다양하고도 큰 목소리들의 반향이거나 하듯이, 서구세계에서는 비교적 후미진 한국에서 그것도 묵은 시대의 한국에서 '녹색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하고 또 제시하려는 점이다. 그리해 그것이 서구적 차원의 생태론적 위기를 위한 가능한 처방의 하나를 시사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저자는 이같은 세가지 과제의를 앞세워 이 책을 기획하고 출간한 것이지만, 그것의 당연한 귀결로서 전통문화 또는 과거 역사의 새로운 재탄생 내지 변용이 생태론적 시야 속에서 성취된 점 역시 간과하고 싶지 않다. 어쩌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화석화했는지 모르는 고전적 전적들, 샤머니즘과 신화와 민속종교 등에 걸친 전적들을 싱그러운 녹색의 생명체로 되살려냈다는 점을 저자와 함께 평자는 기뻐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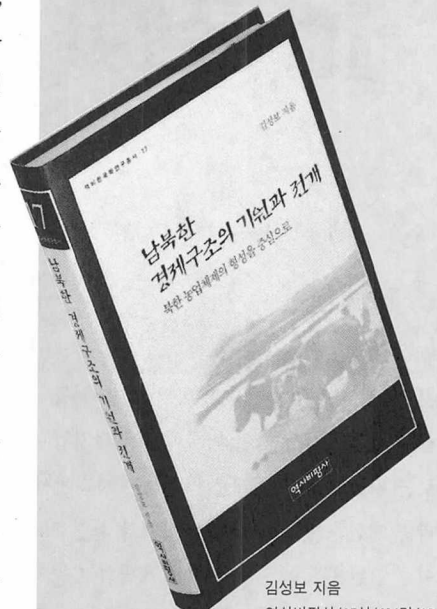
그러나 애니미즘이나 주물숭배와 직결된, 그래서 크게 바 신비주의의 품에 깃들여 있을 우리의 녹색문화가 다른 지역의 비슷한 시기, 비슷한 발상의 그것과 함께, 오늘의 후기 산업사회에서 어떻게 실천적인 구원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될지에 관한 고민은 평자만의 것이 아니기를 저자에게 당부하고 싶다.

김열규

인제대 국문과 교수. 저서 《옥, 그 카타르시스의 미학》 《시적 체험과 그 형상》 《한 그루 우주나무와 신화》 외.

북한농업사 연구의 주목할 만한 성과 북한 연구의 자극제 역할 기대돼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김성보 지음
역사비평사/A5신/404면/18,000원

남한의 북한 연구에서 두드러진 특징으로 현상 분석이 지나치게 비대화돼 있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워낙 남북한 사이에 큰 사건이 많다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튼튼한 기초 연구의 뒷받침 없는 현상 분석은 사상누각이 될 위험이 있다. 이런 점에서 김성보 박사의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는 북한 농업 분야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힐 만한 연구다. 더구나 경제학적 시각에서 접근한 저작이 대부분이었던 이 분야에서 역사적 시각으로 북한 농업을 다룬 연구는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북한사 연구로서도 중요한 성과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근현대사의 맥락에서 본다면 김용섭 교수의 조선 후기 농업사 연구의 관점을 해방 이후 남북한의 농지개혁과 토지개혁, 나아가 북한의 농업 협동화로까지 확대한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책은 자료 이용 면에서도 그동안의 북한 연구 가운데 보기 드문 역작에 속한다. 사실 언어 제약이 뛰어넘어 영어, 일본어는 물론 중국어, 러시아어 자료를 골고루 활용한 학자는 미국의 서대숙과 일본의 와다 하루키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자료 활용 면에서 이들에 필적할 만하다. 특히 저자가 러시아에 체류하면서 북한 토지개혁에 대한 소련의 정책에 관해 새로운 자료를 발굴한 것은 귀중한 성과다.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제1부는 조선 및 일제시대에 전개된 농업개혁론을 정리했다. 저자는 토지개혁이나 농업협동화를 과거에 논의된 일련의 개혁 구상이 현실 속에서 실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2부는 북한의 토지개혁을 본격적으로 다뤘다. 북한 연구 가운데 이 주제에 관해서는 비교적 연구가 많이 이뤄진 편이지만, 저자는 소련의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북한 자료와 대조,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 제3부는 토지개혁 이후 농업협동화 이전까지의 농업 체제를 다뤘다. 저자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길'로서 인민민주주의 단계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제4부는 북한의 농업협동화를 그 논의 과정에서 완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정리했다. 이 부분도 기존의 농업협동화 연구를 뛰어 넘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토지개혁부터 농업협동화까지 북한 농업 분야에 관한 한 남북한을 통틀어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 학계에서도 상당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95~97년 식량난 이후 북한 체제는 전환기에 직면해 있으며 분조관리제 개선 등 농업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 아시아 사회주의의 개혁 과정을 보더라도 농업 분야의 변화는 체제 개혁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재평가는 북한 체제의 앞날을 전망하는 데도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책은 북한 체제의 과거·현재·미래를 조망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널리 읽힘으로써 북한 연구에서 기초 연구와 역사 연구가 활성화되는 자극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동만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논문 <북한사회주의 체제 성립> <북한 농업집단지화 연구> 외.

서평

과학기술의 사회문화적 측면 분석 생명공학에 대한 관심 아쉬워

《과학 기술과 한국 사회》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일상적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과학기술은 '문화'인가? 과학기술과 정보화는 과연 성 중립적인가? 과학기술이 사회적으로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이 필요한가?

이상의 질문들에 대한 만족스런 답은 결코 과학기술 경제학이나 경영학, 혹은 기술혁신연구(innovation studies) 등에서는 찾을 수 없다. 과학기술 경제학이나 경영학, 혹은 혁신연구 등은 생산성, 효율성, 그리고 경쟁력 연구의 선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로 매개되는 인간 삶의 의미 변화나 과학기술의 사회문화적 함의,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상호작용 등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오히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과학기술 사회학이나 인류학 등의 학문분야가 이상의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과학기술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윤정로 교수가 펴낸 이 책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회제도가 돼버린 과학기술의 사회문화적 측면에 관한 매우 시의 적절한 중요한 연구성과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돼 있는데, 먼저 제1부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관점과 서구 과학기술 사회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우리에게 현실 적합성이 있는 과학기술 사회학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이론적·방법론적 논의들로 채워져 있다. 특히 한국에서 과학기술 사회학을 학부학생들에게 교육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강의계획안과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한 2장은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2부는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의 관계를 탐색한 글들로 구성돼 있는데, 한국 반도체산업의 발전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과학기술 기초연구의 육성 방향과 전략을 탐색하는 정책학적 분석, 그리고 전후 미국과 일본의 군수산업과 첨단기술개발의 관계에 대한 분석 등이 이뤄지고 있다.

제3부는 저자가 최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과학기술과 여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한국 과학기술계의 저조한 여성참여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과학기술계에서 여성의 위상과 정보화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그리고 가사기술의 발전이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과학기술 및 정보화가 우리나라 여성들의 삶에 대해 갖는 함의를 파악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 책에 수록된 각각의 글들은 모두가 일독할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평자에게는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화의 진전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 제3부의 다섯개 논문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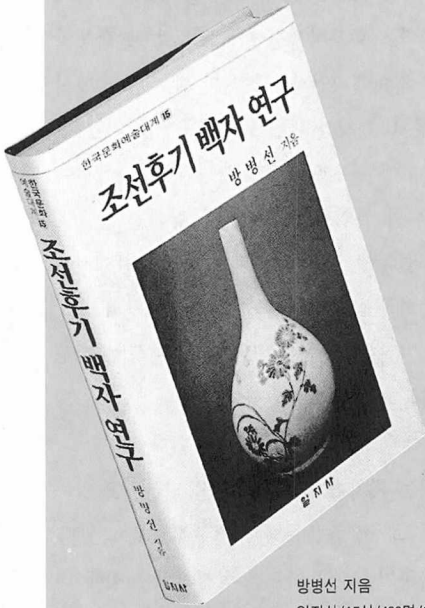
그러나 이 책이 지니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평자는 이 책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생명공학이나 인간 유전체기술 등에 대해 어떤 사회학적 분석도 제시해 주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저자의 후속적인 연구를 기대해 본다.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저서 《과학기술의 사회학》.

자료분석 통해 조선후기 백자 재조명
백자의 제작기술 실증적 제시 돋보여

《조선후기 백자 연구》



방병선 지음
일지사/A5신/498면/25,000원

한국도자는 중국·일본의 도자와 함께 동양도자사(東洋陶磁史)에서 독특한 아름다움과 성격을 지녀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다. 또한 한국민족의 삶과 예술을 선사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보여주고 있어, 고고학과 미술사의 중요한 연구영역이기도 하다.

이런 한국도자의 영역 중에서도 가장 한국적인 도자의 특징이 잘 나타난 것은 조선시대의 도자로서, 전기의 분청사기(粉靑沙器)와 후기의 철화백자(鐵畵白磁) 및 청화백자(靑畵白磁)를 들 수 있다.

최근까지 조선전기 분청사기의 연구는 활발했으나 조선후기의 도자는 그 연구성과가 매우 적어, 한국도자의 전 영역 중에서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결과는 미미했다. 따라서 이 책은 조선백자 연구의 공백을 메워주는 매우 중요한 연구성과로 보인다.

이 책은 여러가지 사료와 각종 문헌기록을 통해, 분원제도의 정비와 완성, 그리고 변화라는 관점에서 조선후기 관요 운영의 특징 및 조선후기 백자를 재조명했다. 또한 이하곤과 영·정조, 북학파, 서유구, 이규경을 통해 조선후기의 도자관을 살펴봄으로써 20세기 이후 일본과 서구 도자

의 오류 속에 파묻힌 우리 도자의 제 모습을 찾고자 했다. 아울러 문헌자료와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조선후기 백자 제작기술의 특성을 태토, 유약, 안료, 가마와 번조기술, 성형 및 장식기법의 측면에서 밝히고자 했다.

그리고 이런 바탕 위에서 조선후기 도자 양식의 특성과 변천을 3기, 즉 1기(인조~경종; 1623~1724), 2기(영조~정조; 1724~1800), 3기(순조~고종; 1800~1897)로 나눠 조형과 문양의 특징에 따른 양식변천사를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은이는 조선후기의 도자에 관한 각종 사료와 문헌기록을 찾아 꼼꼼하게 번역하고 하나하나 분석해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 책은 지은이의 매우 고심에 찬 노고의 결과로서, 이 방면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문헌기록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크게 유용하다. 현존하는 수많은 백자의 사진과 도면자료, 그리고 《진찬의궤(進饌儀軌)》 등의 그림 등 풍부한 자료제공도 적지않은 도움을 준다.

아울러 그동안 도자사 연구에서 소홀히 해왔던 백자의 제작기술을 태토와 유약, 안료와 성형, 가마와 번조기술로 나눠 실증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쉽게 설명한 점은 크게 돋보이는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선후기 관요 운영을 3기로 나눈 것과 조선후기의 백자 양식의 특징으로 제시한 조형과 문양이 잘 맞지 않는 점이 아쉽다. 백자의 연대추정으로 제시된 일부 논의도 기준과 다른 다소 비약된 면도 보이니, 이는 실제작품을 보고 판단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이라 생각된다.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이 책은 조선후기 백자연구에 있어 중요한 역사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윤용이

원광대 국사교육과 교수. 저서 《한국도자사연구》(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외.

내 책?

원고는 있는데
출간할 방법을 못 찾고 계시나요?
삶의 이야기는 풍부한데
집필할 여유가 없어 망설이시나요?

당당하게 내 책을 만드는 길이 있습니다. 출판물의 모든 권리를 저자분에게 돌려드리는 사상 초유의 출판 시스템! 지금 전화 주십시오. 기획·집필에서 제작·영업까지. 책만드는공장에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출판집단 **책만드는공장**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18-6
전화 02)406-8137 FAX 02)406-8138